

폐기물 재생 선구자

- (주)삼정(三井) 피홍배 회장 방문

이상룡 | 시조시인, 본지 주간



피홍배 | 주식회사 삼정(三井) 회장

세 우물을 파는 주식회사 삼정(三井), 피홍배 회장은 세 개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을 때까지 피와 땀을 흘린 이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거인이다.

피홍배 회장은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여 근무하면서 1970년도 국제적 자원파동으로 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을 보고 특별히 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아쉬워하고 이것은 국가로 보나 기업으로 보나 너무나 큰 낭비요소로 판단되어 10여 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정부로서도 부존자원이 없는 자원빈국으로써 에너지 한계 극복을 위하여 외자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화를 장려하는 등 특히 폐기물의 재활용을 국가의 명제와 생존전략으로 요청하게 되었다.

피홍배 회장은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인 1972년에 이미 조그마한 규모로 폐기물 재생을 위한 주식회사 삼정(三井)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설립되었으나 폐기물의 재생기술 개발,

재생 가능한 폐기물의 수집, 재생품에 대한 공급처 확보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이 모두가 생소하고 어렵기만 하였다. 피홍배 회장은 1차적으로 변압기에서 생성되는 폐절연유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폐절연유 재생기술을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고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폐절연유를 수집하여 이를 재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폐유 재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재생절연유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고 자원 파동으로 인한 원자재 품귀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동전선을 재생 가공하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생산설비의 개발, 기술인력 등 모든 생산 기반을 갖추고 업무

를 추진하여 폐동전선의 80%이상을 재생 활용토록 함으로써 이 또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노후전선의 교체에 따라 발생하는 폐 P.V.C 전선을 소각하여 나동선으로 재생, 전선가 공용으로 활용하던 기존 소각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기계탈피방법에 의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탈피의 효율성은 물론 과거 소각에 의한 공해발생과 위험성·열화에 의한 품질 감량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고 기계탈피로 얻어지는 P.V.C를 재활용함으로써 수입대체와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주시회사 삼정은 1993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폐 P.V.C전선의 재활용에 최선을 다했다.

또 피흥배 회장은 폐절연유를 재생·공급하는 과정에서 노후와 고장으로 철거되는 변압기를 고철로 매각되는 것을 보고 변압기의 정비 수리를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변압기 정비만으로는 제조 설비, 기술, 인력 확보 등 고정경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적정규모 문제가 있어 신품 변압기의 생산에 착수하기로 하였고 199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압기 재활용의 기수로 일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변화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포착하여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변압기 절

연유를 폐기하지 않고 재생 활용함으로써 귀중한 외화를 절약하였다. P.V.C 피복선을 소각하여 고동을 회수하던 방법을 기계탈피 방법으로 전환 하므로서 동전선의 재활용과 P.V.C 회수로 인한 자원절약, 환경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철로 매각해 오던 철거 변압기도 간이수리를 통한 재활용으로 신규 구매 예산을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않았다. 1973년도에 폐절연유 확보를 위하여 폐절연유 발생기관으로부터 폐절연유 재생 연간단가계약 입찰이 있었다.

당시 업체의 난립, 과당 경쟁의 어려운 상황을 간파하고 차라리 국가 재정에 일조함이 더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리터당 1전에 투찰(년간 입찰예정 가격 1억 7백만원)하여 낙찰되었다. 낙찰은 되었는데 폐유를 재생하려고 하나 회사의 재정이 빈약하여 재생비용을 염출하는 데 말뚝할 고생을 하였고 허다한 난관을 거쳐 1년간 차질 없이 폐유를 재생하여 계약처에 출혈 납품했던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폐유재생에 투입된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물론 채권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회사가 모두 도산되고 가정생활도 파산지경 속에 깊이 빠지게 되어 세상에 머리를 둘 곳이 없고 가족이나 이웃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피흥배 회장은 한 때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를 절감하고 오직 신앙심 하나만으로 이를 극복하여 제2의 새 삶을 사는 데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한다고 한다.

그 후 회사 각 부분에도 전문 인력을 확보·배치하였고 연구소를 통하여 폐자원 재생기술 개발 등 가일층 박차를 가하므로써 1972년도에 설립된



자그마한 주식회사 삼성은 파란만장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세우물(三井)에 맑은 물이 팔팔 나올 때까지 오늘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피홍배 회장 개인적으로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선도적 구실을 수행한 것은 국익은 물론 자원과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으면 재활용 정착에 기수가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더욱이나 1997년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아야만 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피홍배 회장은 금모으기 운동을 최초로 전개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제 31기 회장이었던 그는 당시 송년회 대신 「IMF시대의 경제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우리 나라가 매년 금을 수입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 매각하므로써 달러 낭비를 줄여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피홍배 회장 부인이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모아 두었던 금붙이 650만원 상당을 선뜻 들고나와 많은 회원의 참여

를 호소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 후 이 캠페인이 민간차원의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IMF 위기 극복에 큰 초석이 되었다.

이 운동은 또한 우리 나라가 일제시대 국채보상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이후 처음이었으며 당시 외신을 타고 세계 속에 널리 퍼져 나가 우리 국민의 저력을 과시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피홍배 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 남다른 경영방침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주식회사 삼성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 “우리는 한 가족(We are family)”이라는 투철한 경영 mind를 갖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생 그 삶의 기초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다.

피홍배 회장이 숨어서 하는 일은 우선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분야에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흘러나온 소식에 의하면 골퍼로서 세계를 주름잡는 최경주 선수를 일찍부터 도와 준 후원자임이 밝혀졌고 대한상 이근경희 산하 “보은용사촌”에도 지활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피홍배 회장은 애항심도 투철하다. 50여 년의 객지 생활에서 익혀진 것인지는 몰라도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한다. 고향이 경북 성주인 그는 무엇이든 있으면 고향에 주고싶고 알던 모르던 고향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안부를 물어보며, 고향만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성주 향우회장직을 맡아 열심히 고향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고향을 위한 일에는 언제나 목이 마르다고 했다. 고향은 피홍배 회장에게 뼈와 살을 준 어머니이며 영원한 쉼터이므로 그는 평소 고향을 운택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효심과 애항심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피홍배 회장은 종친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20여 년의 피씨가문의 종친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종친들의 구심적 구실을 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여 종친들에게 애종심을 갖도록 독려와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1993년부터는 각 지역위원회의 추천으로 효자효부 등 효행자를 선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표창을 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으로 특정대학 입학시 등록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80세이상 회원에게 수복상(壽福賞) 수여제(授與制)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이루어낸 일은 아니고 우리 종친들의 일심단합의 결과라고 종친들의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대종회장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있는 피홍배 회장은 종친회 일도 산더미같이 많은데 늘 생각나는 것이 종친회의 회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것

이라고 한다. 물론 돈이 따르는 일이라 쉽지는 않은 일이겠으나 종친들이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피씨는 하나라는 일념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윤리관을 존중하여 회원 상호간에 우의가 더욱 돈독했으면 하는 것이 종친회에 대한 피회장의 바람이라 한다.

천성이 부지런한 피홍배 회장은 오늘도 먼동이를 무렵부터 늦은 저녁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며 사업경영에도 소홀함이 없이 그 인내와 열정어린 추진력은 사회에 귀감을 주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피홍배 회장은 항상 자신을 60점짜리로 낮춘다. 겸손의 한 면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끝으로 피홍배 회장의 하는 일에 대로가 열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진정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소망이 되는 큰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